

“지자체 공사 지역 건설자재 85% 구매”

건설공사·설계용역 설명회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된다.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지역 공공기관 등은 2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공사 발주는 3,436건 4조 395억원으로 이 중 건설공사는 2,782건 3조8,728억원, 설계용역은 654건 1,66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자재 구매 목표 비율을 도 및 시·군은 85% 이상, 유관기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가 26일 원주시 태장동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오윤석기자

관은 70% 이상 등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건설 관련 인허가 시 △지역건설자재 의무사항 명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건설자재 사용 반영 △지역건설자재 구매 촉진 분위기 조성 △각종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지역자재 구매 이행력 확보 △

지역건설자재 생산업체의 품질 제고 유도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도·시·군의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상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자재·장비·인력 우선사용 등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위윤기자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가 26일 오후 원주 아모르컨벤션에서 도내 발주기관과 경제·건설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윤수용

“올림픽 기반시설 공사로 건설경기 활성화”

■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올해 도내에서 4조395억원 규모의 건설 관련공사가 발주된다. 이는 지난해 4조2309억원보다 4.7% (1914억원) 감소한 수치다.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26일 오후 원주 아모르컨벤션에서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업체 수주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된 올 도내 건설공사는 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해 원주국토관리청, 도교육청, LH강원지역본부 등 58개 기관이 3436개 사업에 모두 4조395억원을 발주한다.

최기호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겨울올림픽 기반시설 공사 등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

도,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겨울올림픽 시설조성이 대형공사로 진행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제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발주처의 협력과 강원건설인의 건설한 공사 진행 등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주/윤수용 ysy@kado.net

강원지역 공사·설계 물량 2년연속 '4조원 시대'

올해 강원지역에서 총 4조원 규모의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이 발주된다.

강원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정동기)는 26일 원주아모르컨벤션 웨딩홀에서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 58개 기관에서 발주할 사업은 총 3436건, 4조395억이다. 지난해(4조2309억원)보다 1914억원(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2년 연속 4조원대 시대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는 2782건, 3조8728억원이며 설계용역은 654건, 1667억원이다.

기관별로는 도 및 시·군이 62.7%인 2422건, 2조53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298건, 6781억원), LH 강원지역본부(29건, 3954억원), 강원도교육청(261건, 1316억원), 한국전력 강원본부(187건, 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규모로는 100억원 이상 공사가 63건, 2조5627억원,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48건, 2993억원,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35건, 6514억원, 10억원 미만은 1435건, 4610억원으로 분석됐다. 각 기관들은 올해 발주 물량의 80.8%인

올해 4조395억 발주

건설공사 3.8조 차지

상반기내 80% 집행

3217건(3조2643억원)을 상반기 내에 발주해 일차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 발주 주요 공사로는 지방도456 월정3거리~차항 간 도로확포장공사(619억원·10월),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장 건설공사(160억원·4월), 양덕원천 갈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100억원·4월) 등이 있다. 7월에는 면옥전(296억원), 오대천(104억원), 송천(190억원) 등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하천정비공사가 쏟아질 예정이다.

사군 주요 공사로는 원주 추모공원 조성공사(219억원·3월), 원주 주포천 재해예방사업(124억원·3월), 원주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102억원·3월),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240억원·7월),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건립공사(440억원·6월), 강릉 한옥체험단지 조성공사(100억원·11



월), 태백 스포츠단지 조성사업(210억원·6월), 속초 흥계타운 건립(140억원·12월), 평창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유천-용산(100억원) 및 진부C~호평교(230억원·이상 11월), 양양 오색자연휴양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270억원·7월) 등이 있다. 횡성군은 새말(449억원) 및 석벽골(450억원), 무덤실(895억원), 웃말(779억원), 지오리골(1014억원), 배나무정(908억원) 등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공사가 3월에 일제히 발주될 예정이다. 횡성을 조곡리 조곡교 재설치공사(300억원) 및 학곡리 학교3교 재설치공사(400억원), 베이스로 테마파크 조성사업(119억원)도 3월에 발주된다.

유관기관 공사로는 정선교육지원청의 함백중학교 이전공사(156억원·4월), LH의 원주태장2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공사(150억원·8월), 한전의 동해변전소 170kV GIS 설치공사(120억원·8월),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선군의료원 건설공사(239억원·7월) 및 동계올림픽 기존 경기장 개보수 전기공사(210억원·12월)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도는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자재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구매 목표 비율을 도 및 시·군은 85% 이상, 유관기관은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건설관련 인·허가 시 지

역건설자재 구매 의무사항을 명기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건설자재 사용을 반영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및 시·군의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호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경기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도 및 시·군, 유관기관에서는 건설 관련 공사의 의무공동도급과 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 하도급비율 준수 등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훈기자 hoony@

지난해 공사계약 2.2兆... 25% 감소

기성액은 2조3788억원으로 전년보다 4% 증가

지난해 강원지역 종합건설사의 공사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4분의 1 감소했다.

2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의 2015년도 회원사 실적보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계약금액(공공·민간 포함)은 2조20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던 2013년(2조9811억원) 대비 25.9% 줄어든 금액이다.

공공에 비해 민간 수주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공공의 경우 지난해 1조4286억원으로 2013년(1조4666억원)과 엇비슷했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1조원을 훨씬 밑돌았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1조88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1조6751억원)에 비해 무려 35% 감소했다. 도목역시 8731억원으로 전년(1조1875억원) 대비 18% 줄었다. 반면 산업환경은 6127억원으로 전년(3666억원) 대비 67.1% 증가했다.

기성액은 2조3788억원으로 전년(2조2865억원) 대비 4% 증가했다. 기성액 순위로는 요건건설산업이 2270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현대아산(1707억원), 대림종합건설(757억원), 신화건설(5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훈기자

동해안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강원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캐나다 던디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인 '던디360 동해개발공사'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단위지구별로는 첫째의 투자 유치이다.

던디코퍼레이션은 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글로벌 투자금융 전문기업으로, 도시개발·자원개발·부동산개발·농어업 분야 등 15개 사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던디360 동해개발공사는 현재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및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다.

망상지구는 관광·레저·스포츠·문화·주

거 등이 복합된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향후 7~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올해 마스터플랜 및 실시계획 수립과 개발규모 확대(1.82㎢ → 6.49㎢)를 위한 개발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이 추진되는 시발점으로써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국제적인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유치한 것은 다른 지구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훈기자

“올해 건설 재도약 골든타임... 모든 역량 집중”

건협, 57회 정기총회... 공사비 현실화 등 20개 과제 선정

건설협회가 올해를 건설산업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건설시장 정상화와 국내 수주 130조원 달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상규)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건협은 올해 사업목표를 '건설시장 정상화, 국내수주 130조원 달성'으로, 4대 추진전략은 △산업구조 혁신 △클린 건설 실현 △성장동력 확보 △회원서비스 확충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건설

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선진산업으로의 성장기반 조성 △수요 창출 및 투자여건 개선 △회원지킴이 역할 및 서비스 강화 △건설 패러다임 전환 및 상생경영 실현을 중점 추진한다.

협회는 이날 또 공석이 된 회원이사 1인 보궐선출과 임기가 끝난 감사 1인 선출의 건도 상정했다. 이 가운데 회원이사 보선은 회장에 위임하고 신입 감사는 전협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기로 했다.

최상규 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협회는 올해를 건설산업



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의 해로 정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세부 실천방안으로 공사비의 현실화, 공공기

관의 적체행위 근절, 건설수요 창출 및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등 2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사진=안윤수기자 ays77@